

문화수도 국비예산 5년간 계획대비 고작 20% 반영 “문화전당만 덜렁 건립하고 말건가”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이춘문·김영우 의원 추궁

광주시의회는 15일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춘문(무·서구 1)·김영우(민·동구 1) 의원이 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 지원 미비와 우치공원명품화 사업 지지부진,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춘문 시의원은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대비 국비반영 비율이 2009년 40.2%, 2010년 36.6%, 2011년 29.1%, 2012년 13.1%, 2013년 22.1%에 머물고 있다”며 “계획 대비 80%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된 45개 사업 가운데 27개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올 해에도 총 31개 사업 중 17개 사업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초 우려했던대로 문화전당 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2015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 운

영주체와 관련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며 “강원대 시장이 법적으로 재정확보가 이뤄지면 법인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광주시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비 총액은 총 6504억원으로 투자계획 1조4913억원 대비 43.6%이다”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전체 국비 반영 비율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이후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투자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우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우치공원 놀이기구 26종 중 18종이 20년이 넘어 소비자 목적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주시의 안전한 행정을 위해서 노후화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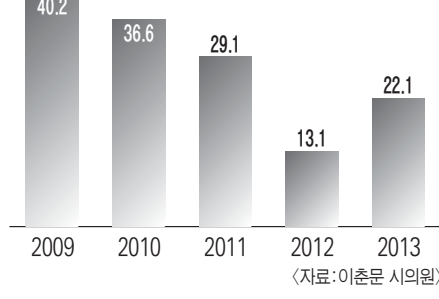


이춘문 시의원 김영우 시의원

김 의원은 또 “지난 1999년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설관리공단이 광주시 도시공사로 흡수합병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시민복지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5U대회 개최 이후에는 관리해야 할 공공체육시설이 추가로 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시계획 대비 국비반영률 (단위:%)



어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을 광주시체육회 등에 위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는 2015U대회 개최 이후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력, 예산 등 재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문순태 형, 장흥의 내 해산토끼에는 바야흐로 연보라색 숙부쟁이 꽃과 하얀 구절초 꽃이 만발했네. 자네의 담양 문학의 집 생오지의 가을 풍경은 어떤가. 젊은이는 미래를 먹고 살고, 늙은이는 과거 기억을 되새김하고 산다는 말이 맞는가 보네. 이 글을 쓰려고 하면서 문득 우리들의 짧은 시절 생각이 났네.

얼굴을 내놓지 않아야 할 제작진, 연출자, 무대감독, 조명감독, 소품 담당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힘을 과시하니, 모든 배우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리고 그들이’ 되어 가는 모양새가 요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그들이’란 말은 ‘엑스트라’를 내가 순 우리말로만 들어본 것이네.

우리가 광주에서 30대를 산 1970년대는 유신독재의 시대였고, 중앙정보부가 무대를 주름잡고 활보했는지 않은가.

광주가 피에 물든 1980년대는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였는데, 국가안전기획부 이름 바꾼 그 기관이 무대 전면에 나서서 활보했고.

경찰서 정보와 형사를 가운데는 문제의 기자 담당, 문제의 운동권 사람 담당, 문제의 시인 소설가 담당이 있었네. 그들은 사할 결과를 일일보고 했었지.

소설가인 나와 신문사의 부장인 자네는 날마다 퇴근 후에 만나 술을 마시면서 문학을 이야기 하고 막가는 시국의 풍경에 대하여 분만을 토했었네.

나는 한 공안 검사를 역에서 만났는데, 정색을 한 채 “당신은 왜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만 떠껍하게 쓰느냐, 당신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다, 한 번 부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네.

그 무렵, 정의와 진리의 편을 들 수 없는 기자들은 스스로를 기생 노릇하는 기자(妓者)라고 빈정거리기도 했었지 않은가.

그 무렵,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로또 같은 거수기로 활동할 뿐이었고 야당 의원들이 바른 말을 못했으므로, 그들의 의정활동을 조롱하는 유언비어들이 흘러 다녔네. 대표적인 것이 ‘복지야파트의 간판’에 대한 것이었네.

그때의 그 슬픈 유언비어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나선 한 여당 의원,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복지야파트의 간판에서 누가 떨어져 나갔는데, 총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 활짝 웃고, 덩달아 나선 한 야당 의원이 “다들 날 보니 ‘트’자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는데 그것은 어찌 된 일이나?” 하고 추궁했다는 그 유언비어가 슬프게도 우리의 슬픔을 살아나게 했었네.

알아 전에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등진 사건이 문득 그것을 떠오르게 했네. 세상을 빈정거리는 유언비어는 사회의원들을 은밀하게 불러 “입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너 먼지 한 번 털어볼까 하고 협박을 하며 관리했고, 반골 대학교수와 문제의 기자와 문제의 시인 소설가들을 불러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었네.

그 기관에 한 번 다녀 나온 국회의원들은 바른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고, 거기 다녀 온 교수는 정의와 진리를 제대로 강의하지 못했고, 올바른 학술 논문을 쓸 수 없었고, 거기 다녀 온 기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기사 작성을 할 수 없었고, 거기 다녀 온 시인·소설가들은 주눅이 들어 정의와 진리를 편드는 글을 쓸 수 없었네.

<소설가>

“정쟁중단 선언 협의 나서겠다”

민주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정쟁중단 공동선언’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대표 간 접촉을 통해 협의가 나서겠다고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최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 제안이 어제 하루만 보면 진정성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진정성 있는 제안이기를 눈곱مان치,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협의에 나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쟁중단 공동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하려면 먼저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명 ▲민·관·국 민원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정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 국감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방해했는지 이유와 실제적 진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평뉴스

興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 추진 논란

“지역표만 생각” 비판도

새누리당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계획을 뒤집는 것으로 국가 발전보다는 지역구 발전만 생각하는 지역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역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병수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정훈·박민식·유기준·이진복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야지 한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놀라울 뿐”이라며 “민약에 부산으로 정책금융공사가 간다면 정부는 그와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광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병수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정훈·박민식·유기준·이진복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야지 한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놀라울 뿐”이라며 “민약에 부산으로 정책금융공사가 간다면 정부는 그와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광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금남로터미널 빌딩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옌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도전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3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신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완도군 약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5천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광산구 분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1억9천만원 (급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리엔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상무지구 신임대

5층 계약원료
4층 교육
3층 업무
2층 근생
1층 근생

상가임대

각층 580㎡
전용률 80%
12월준공예정

입지조건

상무지구 메인도로
상무역 인접(지하철)
유동인구,차량 많음
아파트,관공서 인접

입지조건

프랜차이즈, 병의원
업무시설,전문학원외

후회없는공인중개사

062)381-0334
010-5335-0075

상무지구라인동신@상가채